| 주가 | 환율 | 금리 |
|---|---|---|
| +0.96 | +1.30 | +0.02 |
| 1,396.69 (코스피지수) | 935.40원 (원/달러) | 4.70% (3년만기 국고채) |

| | | |
|---|---|---|
| 코스닥지수 | 604.90 | (+0.94) |
| 다우(10일) | 12,108.43 | (+5.13) |
| 나스닥(10일) | 2,389.72 | (+13.71) |
| 닛케이 | 16,022.49 | (-89.94) |
|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 117.42엔 | (-0.19) |
| 유로 달러 환율 | 1.2872달러 | (+0.27) |
| 3년만기 회사채 | 5.02% | (+0.02) |
| 콜금리 | 4.45% | (-0.02) |

## 정부, R&D투자 수도권 집중

# 지역 불균형 키웠다

### 4조8천억 중 수도권·대전에만 74% 투자

### 고급 인력·우수기업 흡수…지역발전 저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가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행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 R&D예산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의 지역별 지원현황을 조사·분석한 산자부의'지역 R&D사업 활성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부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의 경우 1천5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에 지원된 비중은 70%에 육박했으며 대전·충남북까지 포함하면 80%를 넘어섰다.

반면 광주(4.8%)를 비롯해 부산(2.3%), 전남(1.8%), 대구(1.0%) 등으로 나타나 5%를 밑돌았다.

또 지난 2005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국가 전체 R&D 예산 4조8천362억원 중 수도권과 대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73.8%였고, 비수도권 비중은 26.2%에 그쳤다.

이처럼 국가 R&D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이 고급인력과 우수기업을 무한정 흡수하는 구실을 해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광산업체 관계자는 "수도권에 국책 R&D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결국 민간차원에서도 가능한 산·학 협력형 R&D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복투자 성격이 짙어 국가 자원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와 지역과학기술혁신체계(RIS)의 연계구축 필요성과 이를 통한 R&D 사업의 지역균형배분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광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특히 중앙정부 주도의 R&D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공모제에서 지역별 총액할당 또는 포괄보조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규모가 큰 정부의 일반회계 R&D사업비의 70%를 총액할당으로 지역에 배분하고, 30%는 기존 공모형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 관계자는 "중앙정부 주도의 R&D 사업자 선정과정과 방식은 현재 지역마다 사업을 따고보자는 식의 과도한 경쟁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5년 단위 이상의 R&D 중장기 방향을 제시해 지역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R&D(Research & Development)=보통 연구·개발이라는 용어로 쓴다. Research는 기초연구와 그 응용화 연구, Development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기초로 제품화까지 진행하는 개발업무를 가리킨다.

**새콤달콤 '석류' 맛보세요** 1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박호성) 식품매장을 찾은 여성 고객들이 진열대에 전시된 새콤달콤한 이란산 석류를 맛보고 있다. 이 석류는 개당 2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광주·전남 기업 장애인 고용 늘어

### 766곳 중 273곳은 의무비율 2% 안지켜

광주·전남지역 민간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지역 근로자 50명 이상 고용 민간기업 766곳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장애인고용비율은 1.82%로 2004년의 1.55%에 비해 0.2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1.49%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역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이 완화된 것으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766곳 중 273곳(36.6%)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기업이 고용한 장애인은 모두 1천791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82%에 그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광주·전남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원인은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 중 상당수(36.2%)가 직접고용이 힘든 건설업체이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장애인이 고용된 다른 사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도급을 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제도'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해외기업 상품정보 무제한 검색

### 무협, 한국콤파스 제휴… 212만개 업체 정보서비스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가 이달부터 전세계 75개국 212만개의 기업정보 보유업체인 한국콤파스와 제휴함에 따라 회원사들이 해외 국가별 기업·상품정보를 무제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한국콤파스의 KOMPASS 서비스는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거래선 발굴을 위해 취급 품목명을 통해 전세계 시장의 바이어 정보를 검색,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검색된 타깃바이어에게 거래제의서를 직접 발송할 수도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光銀

## 1조 4,000억원 ?

### 광주·전남 상공인 인수 추진따라 평가액 관심

### 1조1,000억+미래가치…총자산은 14조5,100억

광주은행의 기업가치는 얼마나 될까.

최근 광주·전남지역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인수가 추진되고 있는 광주은행의 기업가치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은행의 기업가치가 새삼 관심을 끄는 이유는 공적자금이 투입돼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된 광주은행의 인수작업에서 기업가치가 핵심변수인 매각가격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계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모회사인 우리금융그룹의 현재 자산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광주은행의 기업가치는 1조1천억원 수준이며 향후 주가상승분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1조4천억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즉 우리금융그룹의 은행부문 총자산은 지난 3분기말 현재 221조원이며 이 가운데 광주은행은 6.56%인 14조5천100억원(수익증권 1조2천700억원 포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 지난 주말 종가를 기준으로 한 우리금융그룹의 시가총액은 16조8천54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향후 수익창출 능력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업가치'는 시가총액에 순차입금을 더해 산정하는데 이를 토대로 볼때 광주은행의 기업가치는 1조1천24억원으로 산출된다.

금융계에서는 그러나 우리금융그룹의 시가총액이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돼 있는 점과 '적정 시가총액'이 총자산의 10% 안팎에서 결정되는 것에 비춰볼때 우리금융그룹의 현 시가총액이 최대 5조2천억원가량 모자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금융이 최근의 실적 상승세를 바탕으로 증시에서 5조2천억원가량의 기업가치를 회복하면 광주은행의 기업가치도 총자산 비율만큼인 6.56%가 상승한다고 볼때 추가로 3천411억원이 더해져 총 1조4천435억원의 기업가치 추정이 가능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대불산단 '보워터코리아' 조업 재개

### 직장폐쇄 12일만에… 임단협 타결

노조와 '2006년 임금, 단체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보워터코리아(영암군 대불산단)가 임단협 협상이 타결돼 13일부터 조업을 재개했다.

보워터코리어 노사는 기본급 5% 인상과 고용안정협의회(노사 동수 3인 이내) 설치, 퇴직보상금 신설, 정년(55세) 1년 연장 등의 협상안에 합의했다.

보워터코리아는 지난 9월 12일부터 노조가 부분파업과 태업에 들어가자 신문용지 생산 손실이 크고 고객 신뢰회복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직장을 폐쇄했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kwangju.co.kr

## 이전기술 개발비용 지원

### 광주·전남중기청 설명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기술이전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1년 이내, 개발비용의 75%까지(최고 1억원) 지원한다.

설명회에서는 중기청 담당사무관, 기술거래기관 및 대학의 기술이전거래담당자, 민간 기술이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이전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 현황·절차·규정, 이전기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